



2011년 중국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8연래 최저치 기록

왕양비 연구원

■ 중국 외환관리국이 2월 10일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¹⁾ 흑자 비율이 2010년 3.0%에서 2011년 2.7%로 하락했다고 발표하였는데, 동 비율은 2003년 이래 최저치에 해당함.

- 200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.3%에 불과하였으나, 이후 동 비율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.
 - 2007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,540억 달러로 GDP의 10.1%를 차지함.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고, 2009~2010년 들어서는 주요 무역대상국의 경제 불황과 중국 국내수요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.

〈그림 1〉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변화 추이(2000~2011)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, 외환관리국.

■ 그러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정부의 무역 및 환율 등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.

- 2012년 1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동월대비 32% 증가한 180억 달러로 나타남.

1) 경상수지=상품무역수지+서비스수지+소득수지+경상이전수지.

- 2012년 1월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동월대비 0.5% 감소에 그친데 비해 수입 규모는 15.3% 감소함에 따라 무역흑자가 270억 달러로 2011년 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.
- 그러나 일각에선 올 1월에 있었던 10~15일 기간에 달하는 중국 설 연휴로 경제지표의 오차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.
- 2005년 이후 달러/위안화 환율이 이미 31% 가량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음.

(중국경제신문, WSJ, 2/13 등)